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 ; 창조경제 1년과 앞으로 과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오태광

1)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1) 창업

2000년 초에 활발한 벤처 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IMF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그 당시 연구원에도 많은 벤처의 창업이 이루어 졌다. 산업적 전문화된 분야인 “지식 기반 벤처”로 시작하였고 일부 벤처는 코스닥 진출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가졌다. 하지만, 벤처 기업의 속성인 기술이전, M/A등과 같은 순발력 있는 기업생태계에 능동적인 대처하기 보다는 초기의 설립 목적인 지식기반을 떠나 단기적 매출위주로 전환하였다. 결국은 이미 정해진 시장에 대하여 기존기업과 나누어 먹기 식의 시장 경합 방식을 택하여 결국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장 진입은 기존으로 있는 중소, 대기업과의 생태계가 있어 밀어주고 당겨주는 역할이 있어야 가능한데 단기 매출 위주의 전환은 중요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였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서 많이 창업되는 형태인 스핀 오프도 창업 벤처의 초기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다. 창조경제가 원하는 성장 있는 일자리 창출에서 고용의 86-88%를 차지하는 중소, 벤처 기업의 창업은 정말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1.52명이 창업하여 OECD평균 4.76명, 세계평균 3.38명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창업 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재 창업의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요즈마 펀드와 같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창업할 수 있는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거주 포스 닥과 같은 미취업 창업 인력의 재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잘 정립되면 창업된 벤처는 기존 중소 중견, 대기업간의 적극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을 하여 창업하기 좋게 될 것이다.

(2)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 영향 강화

대학교수, 연구원과 같은 많은 연구자들은 대체로 자기 기술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연구 분야에는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산업적인 위치에서 자기 기술의 정확한 가치평가는 기업에 대한 시장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술마켓 개척을 위해서 미국등지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상호 기술 가치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달라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 창업에 필수적인 기술의 학술적 가치 뿐 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정확한 판단이 순발력있는 기술시장 형성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창업자들에게 창업 전 후에 자기 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창업과 창업된 기업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시장도 형성되어 기존 중소기업이 미완성 기술을 구매하여 다른 대학, 벤처등의 기업에 용역 또는 연구비등을 투자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완성되어 만들어진 기술로 기술 영향력을 높여 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고, 또한, 벤처나 연구원이 만든 여러 가지 기술을 모아서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술영향력을 높여서 다양한 기술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결국, 기술 영향 강화를 위한 구매, 기술융합등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창조 경제 달성을 위한 선도형 평가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중 하나는 추격형 기술(Fast Fellow)에서 선도형 기술(First Mover)로의 전환이다. 선도형 기술에는 당연히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실천 요강이다.

대학, 연구원, 기업에서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도형 기술에 도전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모든 연구자나 사업가는 당연히 상상력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선도형 기술로 연구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 또는 사업의 평가는 추격형 기술에 근거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초기 벤처가 지식기반에서 시작하다가 기업 평가를 매출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미 잘 정립된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나누어 먹기에 집중하여 전체적으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창업된 기업은 선도형으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이 원천기술로 기술이전이나 M/A등을 통해서 능동적인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도형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3) 결론

선도형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유도하고, 연구자들은 자기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장을 형성을 쉽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어진 시장을 나누어 갖는 국내 시장 경합보다는 중소, 대기업간 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으로 글로벌 마켓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